

# 사회적 혁신 기반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 전략

최용석\*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백보현\*\*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 국문 요약

현대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제4섹터(the fourth sector)’가 주목받고 있다. 제4섹터는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대표되는 제3섹터의 지나친 정부 의존도와 서비스 모델 동형화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등장하였다(Meadows, 1972; Howaldt and Schwarz, 2010). 이러한 제4섹터의 핵심 주체로서 소셜벤처가 언급되고 있다(경기연구원, 2018).

그러나 아직까지 소셜벤처에 대한 학술적 및 정책적 개념이 모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의 포용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제4섹터로서의 소셜벤처 정의와 특성을 명확히 하고,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발전전략을 연구하고자 한다.

핵심어: 소셜벤처, 사회혁신, 제4섹터, 생태계, 사회적 경제

## 1. 서론

현대사회가 당면한 기후변화, 교통문제, 경제 양극화 등의 다양한 문제해결 주체로 ‘제4섹터(the fourth sector)’가 조명받고 있다(WEF, 2018).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대표되는 제3섹터의 지나친 정부 의존도와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서비스 모델 동형화가 문제 시 됨에 따라, 새로운 사회혁신 주체인 제4섹터에 대한 요구가 등장하였다(Meadows, 1972; Howaldt & Schwarz, 2010).

이러한 제4섹터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오다가 2018년 다보스포럼에서 ‘공유의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10대 과제 중 하나로 ‘제 4섹터 구축(building a fourth sector)’ 개념이 등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각광 받기 시작하였다. 제4섹터는 개념적으로 사회혁신의 필수요소인 가치기반의 사회성, 기술 기반의 혁신성 그리고 생태계 기반의 지속가능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제1, 2, 3섹터가 해결하지 못한 사회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로 여겨지고 있다(kania & Kramer, 2011; 주성수, 2017).

이러한 제4섹터의 핵심 유형으로 ‘소셜벤처’가 언급되고 있다(경기연구원, 2018). 소셜벤처가 사회적 경제 주체의

고령화와 사회적 기업의 동형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비혁신성과 비지속성을 타파할 대안이라는 기대에 따라 사회혁신을 이끄는 핵심적 주체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Stoner & Wankel, 2007; Shanmugalingam et al, 2010; Lurtz et al., 2013; Lisetchia & Brancu, 2014; 성지미 외, 2014; 박민진, 2018; 박민진·박영태, 2019).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6월, 소셜벤처를 통한 사회의 포용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스웨덴 노르스켄(Norrskan) 재단에 방문하여 소셜벤처 육성 성공사례를 공유하였다. 이는 세계적으로 사회문제를 사회성과 혁신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소셜벤처로 해결하고자 하는 흐름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아직까지 소셜벤처에 대한 학술적 개념은 통일되지 않은 채 제각기 사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사회적 기업의 일부, 혹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Kachlami, 2016; Siebold et al., 2018). 또한 국내의 정책 대상으로서는 중소기업에 속하며, 인증사회적 기업 또는 벤처확인기업가에도 포괄되지 않아 정책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중소기업연구원, 2018).

이러한 제4섹터로서의 소셜벤처의 정의 및 판별기준의 모호함은 소셜벤처 시장의 성장과 생태계 활성화를 저해하

\* 주저자, , profcys@cau.ac.kr

\*\* 교신저자, , bellart318@naver.com

는 요인이다. 따라서 소셜벤처의 정의와 특성을 명확히 하는 연구가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제4 섹터로서 소셜벤처의 정의와 특성을 정리하고,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이해관계자별 역할과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제4섹터로서의 소셜벤처를 명확히 정의하고, 사회혁신 생태계가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I. 사회혁신론

### 2.1. 사회혁신의 개념 및 특성

현대사회는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생산성의 혁신적 향상을 통해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으나, 동시에 다양한 문제점에 봉착하였다. 이에 경제 양극화, 기후변화, 교통문제, 사회 불평등,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의 사회 시스템으로 극복할 수 없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자, 새로운 사회적 수요의 대안으로 사회혁신론(Social Innovation)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Edwards-Schachter et al., 2012; Innobasque, 2013; Howaldt et al, 2016).

사회혁신이란 사회적 목적을 가진 주체가 협업의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사회 시스템을 지속가능하게 변환하는 일련의 과정이다(Haxeltine et al, 2011). 즉, 사회적 수요를 찾고 그것을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해결하여 문화, 인식, 체제의 변화를 일으키는 구조적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사회혁신에 대한 필요성은 곧 사회혁신의 주체와 주체가 보유해야 하는 자질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박민진·김태영, 2019).

Chris Freeman(1995)은 사회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특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혁신은 기술이 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또한 경제나 사회에만 맡겨놓아서도 안 된다. 기술, 경제, 사회가 복합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즉, 온전한 사회혁신을 위해서는 가치기반의 사회성(Socialization), 기술 기반의 혁신성(Innovation), 그리고 두 개념이 지속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사회에 확산되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 사회혁신의 필수요소이다(Freeman, 1996; Freeman, 2013). 사회의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사회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두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운용될 때 새로운 체제로의 변환을 가능하게 하는 지속가능성이 확보된다(송위진 외, 2009; 정서화, 2017).

먼저, ‘사회성’은 사회혁신을 위해 추구해야 하는 제1의 가치이다. 사회혁신의 주체는 사회적 책무와 기업가 정신의 결합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고, 궁극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Mulgan et al, 2007). 예를 들어 환경, 교육, 보건복지 등에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다. 사회성이 결여된 혁신은 사회혁신으로서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혁신의 기본 요소로서 사회성이 필수적이다(Freeman, 1994; Freeman, 2013).

다음으로, ‘혁신성’은 시스템적 혁신(system innovation)과 맥락적 혁신(context-specific innovation)으로 나눌 수 있다. 시스템적 혁신은 적정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의 기반을 혁신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적 혁신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다(송위진, 2013). 따라서 결과적으로 사회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적 혁신이 일어나며, 그 결과로서 사회문화 전반에 맥락적 혁신이 발생한다(송위진 외, 2009). 혁신성이 없는 사회혁신은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혁신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Freeman, 1994; Freeman, 2013).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은 사회성과 혁신성이 사회 체제 내에서 원활히 운영되어 결과적으로 사회기술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것을 뜻한다. 지속가능성의 결정요인은 개별 기업의 역량 외에도 다른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태계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Geels, 2004a; Geels, 2004b). 사회혁신이 필요한 분야의 이해관계자가 명확한 역할을 보유하고 전략적으로 운영될 때 사회혁신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된다(강민정, 2017; 윤지훈, 2017).

<표 7> 사회혁신을 위한 필수요소

구분	내용
사회성 (Socialization)	사회적 책무와 기업가 정신의 결합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고, 궁극적으로 사회문제가 해결되는 정도
혁신성 (Innovation)	적정기술을 활용한 지식집약 서비스를 통해 사회의 기반을 혁신하는 정도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사회성과 혁신성을 토대로 사회·경제 시스템이 전환을 이루어 사회적 가치가 지속적으로 실현되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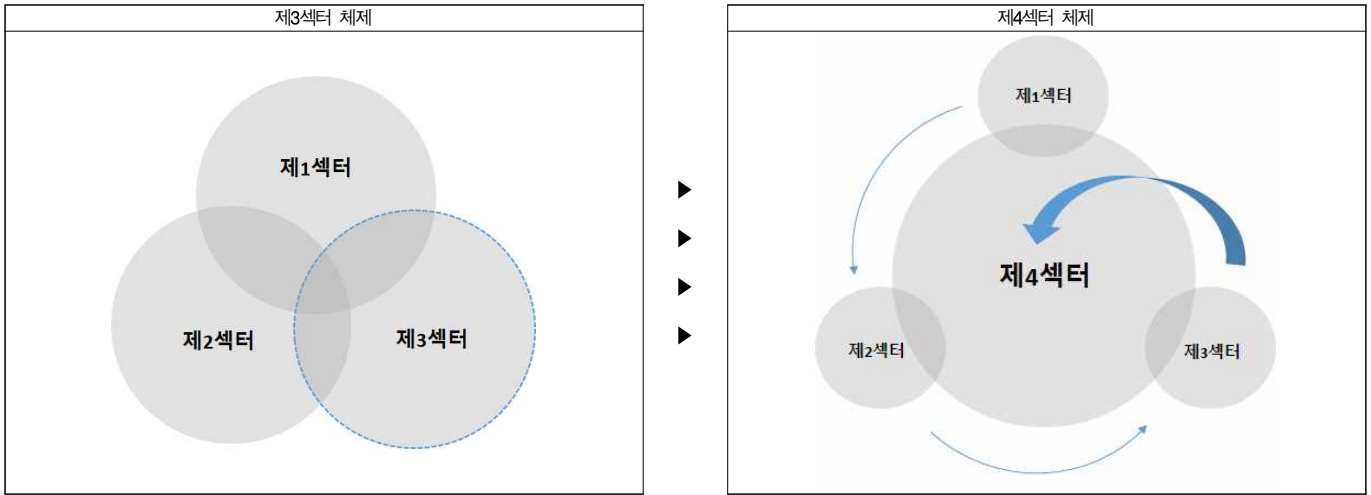
출처 : Freeman(2013) Economics of Industrial innovation

## 2.2. 사회혁신 주체의 발전과정

초기 사회혁신 연구는 개념적 정의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점차 사회혁신을 행하는 주체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박민진·김태영, 2019). 사회혁신의 분야가 광범위한 만큼 혁신의 주체 역시 다양하게 언급되는데, 대표적으로 미시적

혹은 거시적 층위에 따른 분류(Christen et al., 2006, Phills et al., 2008, Pue et al., 2016), 사회적경제 영역에 따른 분류(Milgan, 2007, Escobar, & Gutiérrez, 2011, Caulier-Grice et al., 2012), 조직형태에 따른 분류(Tracy & Scott, 2017) 등이 존재한다.

<표 8> 사회혁신 주체의 변화과정



이 중 사회혁신의 영역을 사회적경제\* 주체에 따라 제1섹터, 제2섹터, 제3섹터 등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널리 통용되며, 특히 제3섹터가 사회혁신의 핵심 주체로 여겨져 왔다(Westly & Antadzw, 2010). 제3섹터는 정부부문인 제1섹터와 민간영리부문인 제2섹터가 운영하지 못하는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조직을 일컫는다(김태근, 2013). 제3섹터는 공공과 민간의 양 영역이 수렴하거나 혹은 전혀 수렴하지 않는 사회의 공백을 도맡아 운영하는데, 이러한 제3섹터의 주체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대표된다(Defourny & Nyssens, 2013).

그러나 최근 들어 사회적경제 조직이 사회혁신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엄형식, 2008; 이민화, 2014; 강민정 외, 2015; Escobar & Gutiérrez, 2011). 왜냐하면 사회적경제 기업의 의미가 ‘사회가치를 위해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조직’으로 통용되기 때문에, 그 의미의 범주가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속가능성이나 혁신성보다는 ‘사회성’에 방점을 둔 오늘날의 개념이 형성된 것이다(Lipietz, 2001; Defourny, 2000).

사회적경제 기업은 2000년대 초반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확산되기 시작하였는데, 국내에서도 IMF 이후 실업 대책

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개념이 정책적으로 활용되면서 다양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었다(박민진, 2018).

사회적경제의 대표적 주체인 사회적 기업은 2007년 사회적 기업법이 제정된 이후 가파른 양적 성장을 보였으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제공형과 사회서비스 제공형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혁신적 성향과는 거리가 멀어졌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6; 중소기업연구원, 2018). 나아가 복지의 대체나 고용 창출과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되면서 사회적 기업은 규모가 영세해졌으며, 정부의존도가 높아 수익보다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더 많은 비중을 두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인간중심화’는 사회성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나, 혁신성과 지속가능성이 결핍되었으며, 결론적으로 사회혁신이라는 이론적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엄형식, 2008; 이민화, 2014; 강민정 외, 2015). 왜냐하면 이들은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에 집중하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하기 때문이다. 이는 엄밀히 말해 인간 중심적이며, 비기술적 요소의 사회변화를 의미한다(Meadows, 1972; Howaldt & Schwarz, 2010). 따라서 혁신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사회혁신의 새로운 대안

\*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는 사회 경제, 사회경제 등으로 번역할 수 있으나, 그 의미가 사회와 경제를 표현하는 일반적 단어와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회적경제’로 표기함(노대명, 2007)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새로운 사회혁신 주체인 제4섹터의 개념이 등장하였다(European Union-The Young Foundation, 2010; Escobar, & Gutiérrez, 2011). 제4섹터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 중반부터 언급되었으나, 그 개념과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된 것은 2018년에 개최된 다보스포럼에서 시작되었다. 2018년 다보스포럼에서는 ‘공유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10대 과제 중 하나로 ‘제 4섹터 구축(building a fourth sector)’ 개념을 제시하면서, 사회혁신을 위해 제4섹터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다보스포럼에서는 기존의 제1, 2, 3섹터의 전통적인 구별은 더 이상 미래에 대한 실질적 방향을 제시할 수 없으므로, 그들과 상호협력하는 제4섹터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제4섹터는 제3섹터와 차별화되는 영역으로 기업 활동에서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사업체이다. 2018년 다보스포럼에서 언급된 제4섹터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4섹터의 비즈니스 모델의 아이디어는 구체적인 사회적 목적(social purpose)에 기반한다(주성수, 2017). 예를 들어 빈곤, 차별, 고령, 교통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서비스 모델을 설계한다.

둘째, 제4섹터는 생태계에 기반을 두고 운영된다. 즉, 국가, 시장 혹은 사회적경제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공조적 임팩트(cooperative impact) 기반으로 해결한다(kania & Kramer, 2011). 따라서 기술, 전략, 법률 등의 분야와 협업을 통해 제 4섹터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킹 구조가 기반이 된다.

셋째, 제4섹터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시장 경쟁체제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이윤뿐만 아니라, 생태계 이해관계자 모두의 이익(For-benefit)을 추구한다. 즉, 공공부문, 산업부문, 대학 및 연구소, 시민사회가 혁신의 클러스터를 이루고 지역을 넘어 국가의 혁신체제를 마련하는 Quintuple-Helix 모델과 유사하다.

이러한 특성을 살펴보면, 제 4섹터의 성격은 사회혁신의 필수요소와 일맥상통하며, 기존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보유하지 못한 혁신성과 지속가능성을 토대로 사회의 혁신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4섹터의 개념에 대한 논의만 이루어질 뿐, 실질적인 수행 주체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제4섹터의 핵심주체는 누구인가?

최근 ‘소셜벤처’가 제4섹터의 핵심 유형으로 꼽히며, 사회혁신의 새로운 주체로 언급되고 있다(경기연구원, 2018). 소셜벤처가 사회적 경제 주체의 고령화와 사회적 기업의 동형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비혁신성과 비지속성을

타과할 대안이라는 기대에 따라 사회혁신을 이끄는 핵심적 주체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Stoner & Wankel, 2007; Shanmugalingam et al, 2010; Lurtz et al., 2013; Lisetchia & Brancu, 2014; 성지미 외, 2014; 박민진, 2018; 박민진·박영태, 2019). 따라서 본 고에서는 제4섹터로서의 소셜벤처 개념과 특성을 도출하고, 소셜벤처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연구하고자 한다.

### III. 소셜벤처

#### 3.1. 소셜벤처의 개념 및 특성

소셜벤처라는 개념은 사회적 기업을 비롯한 사회경제 주체의 고령화와 사회적 기업의 동형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7년 국내 정책용어로 도입되었다(성지미 외, 2014). 이러한 등장 배경은 소셜벤처가 제3섹터의 대표 유형인 사회적 기업과 동일 개념이 아님을 의미한다(박민진·김태영, 2019).

그러나 소셜벤처의 도입 배경과는 거리가 멀게, 소셜벤처에 대한 학술적 개념은 아직 통일되지 않은 채 제각기 사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사회적 기업의 일부, 혹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Kachlami, 2016; Siebold et al., 2018). 또한 국내 정책 대상으로서 소셜벤처의 범주는 중소기업에 속하며, 인증사회적 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의 1호 기반) 또는 벤처확인기업가(벤처기업육성특별법 기반)에도 포괄되지 않아 정책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중소기업연구원, 2018).

이러한 문제점에 근거하여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2018년, 소셜벤처 판별기준 및 가치평가모형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모호하게 통용되던 소셜벤처의 판별기준을 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소셜벤처의 주요 판별기준으로 제시된 ‘사회성’은 사회적 기업의 인증체계에서, 지속가능성을 의미하는 ‘혁신성장성’은 벤처의 인증체계에서 가져옴으로써 제4섹터로서의 소셜벤처 판별기준을 명확히 정립하지 못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평가 문항은 기업의 역량이 아니라, 외부의 인증현황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사업 초기 단계인 소셜벤처를 외부 인증현황에 따라 판별하여 지원하는 입구전략(entrance strategy)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영국, 미국 등의 선진국은 외부 인증보다는 기업의 역량을 판단하는 판별기준을 적용하여 소셜벤처의 다양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고, 소셜벤처 생태계의 저변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정책적 방향을 운영하고 있다. 단, 투자 이후의 성장 과정

에서 사회적, 혁신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의 방향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소셜벤처 산업 촉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4섹터의 핵심 요소를 기반으로 소셜벤처의 정의와 판별기준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사례분석을 통하여 제4섹터로서 소셜벤처가 가지는 특성을 정리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셜벤처의 개념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소셜벤처를 발굴하여 임팩트 투자를 진행하는 대표적 재단으로 스웨덴의 노르웬

(Norresken)을 들 수 있다. 노르웬 재단은 소셜벤처에 대한 4가지 투자원칙을 가진다. 첫째, 전 세계가 직면한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여 긍정적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사회성을 보유하고 있는가. 둘째, 혁신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창출하는 지속가능성이 있는가. 셋째, 사회문제 솔루션의 확산 도구로서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혁신성을 보유하고 있는가. 넷째, 성장가능성을 보이는 창업 초기 기업인가.

<표 9> Norrskan 재단의 소셜벤처 발굴 사례

기업체명	사업내용	서비스
Doctrin	의료인을 위한 환자 이력 디지털화	헬스케어 솔루션
Welcome	사람을 더욱 친밀하게 하는 것이 목적	디지털 네트워킹
Eneo	태양에너지 관련 설계, 발전 운영 등 정보 제공	그린에너지
Matsmart	음식, 돈 및 환경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도움	음식쓰레기 등 절감
Quizrr	혁신적인 트레이닝 솔루션 제공	트레이닝 솔루션
Whywaste	상점의 식품 소비 줄이기	폐기를 절감
Olio	이웃과 지역 비즈니스를 연결하여 잉여식품 공유	음식물 공유 플랫폼
Winningtemp	실시간 인사 데이터 관리를 통한 근무환경 개선	업무환경개선
Karma	잉여 식량을 필요한 소비자에게 낮은 가격에 연결	음식물 쓰레기 절감
Worldfavor	디지털 지속가능성 플랫폼	지속가능성 플랫폼
Hygglo	물건 등에 대한 공유를 쉽게 함	공유경제
Wefarm	농부들이 SMS를 통해 정보를 공유	정보공유 P2P서비스
Kognity	지역인 텍스트를 활용하여 학습 제고	교육환경 개선
Ignitia	농부를 위한 정확한 기상 예보 제공	농업환경 개선
Woshapp	친환경 세차 서비스	세차서비스

출처 : 중소기업벤처부 보도자료 (2019.06.15) 문 대통령 소셜벤처를 통한 포용적 성장의 현장 방문 Norrskan(<https://www.norrskanfoundation.org/>) 자체 조사

노르웬의 소셜벤처 투자원칙은 곧 제 4섹터로서의 소셜벤처가 갖추어야할 필수요소와 유사하다. 또한 이러한 기준 하에 임팩트 투자를 지원한 결과 스웨덴은 소셜벤처의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아래의 <표 3>은 노르웬에서 투자한 대표적인 소셜벤처이다. 해당 사례를 토대로 소셜벤처의 구체적인 특성을 사회혁신의 세 가지 필수요소인 사회적, 혁신성, 지속가능성에 따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셜벤처는 사회성의 일환으로 전략적 니치 관리 (strategic niche management)를 추구한다. 니치란 ‘좁은 틈새’로 번역할 수 있다. 즉, 사회의 틈새를 발견하고, 사회적 니즈가 있으나 아직까지 충족되지 않았던 서비스를 잠재고객에게 공급하는 전략이다(Ieromonachou et al., 2004). 소셜벤처는 시장 규모가 작거나 충분히 성장하지 않아 민간 기업이 무시해왔던 사회적 시장을 발굴하여 니치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Kess, 2007; Frickel et al., 2010; Hess, 2015; 송위진 외, 2009).

예를 들어 특정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엔젤스윙’의 정밀지도가 사회적으로 효과적임이 입증되면,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니치가 확장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회의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어 사회성을 충족하는 것이다. 단, 이때 니치의 본질은 사회성에 더불어 기술기반의 혁신성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소셜벤처는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노동통합 정도는 낮지만, 사회성 그 자체의 파급효과는 크다. 노동통합이란 특정 취약성으로 인해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실직자를 노동시장으로 재통합하는 과정을 뜻한다(Davister et al., 2004; 남미옥, 2014; 장원봉, 2008). 취약계층의 사회적경제 역할에 주목하여 노동통합사회적기업(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s, WISEs)가 다수 운영되고 있다(Battilana et al., 2015). 그러나 소셜벤처는 기술 지식에 기반을 두고 서비스 모델을 구성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학기술계 혹은 경영경제계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장애인, 이주민, 노인 등의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서비스를 제공

하는 노동통합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표 4> 사회혁신의 주체별 차이점

기업체명	사업내용	서비스
Doctrin	의료인을 위한 환자 이력 디지털화	헬스케어 솔루션
Welcome	사람을 더욱 친밀하게 하는 것이 목적	디지털 네트워킹
Eneo	태양에너지 관련 설계, 발전 운영 등 정보 제공	그린에너지
Matsmart	음식, 돈 및 환경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도움	음식쓰레기 등 절감
Quizrr	혁신적인 트레이닝 솔루션 제공	트레이닝 솔루션
Whywaste	상점의 식품 소비 줄이기	폐기물 절감
Olio	이웃과 지역 비즈니스를 연결하여 잉여식품 공유	음식물 공유 플랫폼
Winningtemp	실시간 인사 데이터 관리를 통한 근무환경 개선	업무환경개선
Karma	잉여 식량을 필요한 소비자에게 낮은 가격에 연결	음식물 쓰레기 절감
Worldfavor	디지털 지속가능성 플랫폼	지속가능성 플랫폼
Hyglo	물건 등에 대한 공유를 쉽게 함	공유경제
Wefarm	농부들이 SMS를 통해 정보를 공유	정보공유 P2P서비스
Kognity	지적인 텍스트를 활용하여 학습 제고	교육환경 개선
Ignitia	농부를 위한 정확한 기상 예보 제공	농업환경 개선
Woshapp	친환경 세차 서비스	세차서비스

출처 : 중소기업벤처부 보도자료 (2019.06.15) 문 대통령 소셜벤처를 통한 포용적 성장의 현장 방문 Norrskan(<https://www.norrskanfoundation.org/>) 자체 조사

그러나, 소셜벤처의 비즈니스 모델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때 사회에 미칠 수 있는 혁신의 파급효과는 더 크다. 왜냐하면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기술의 시스템적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셋째, 소셜벤처는 혁신성의 측면에서 적정기술 기반의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추구한다. 파괴적 혁신이란 기존에 무시되어 왔던 사회적 니즈를 저가의 기술을 통해 충족시킴으로써 기존의 시장 구조를 파괴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혁신이다(Christensen & Ruggles, 2006; Christensen, Raynor & McDonald, 2015). 소셜벤처는 기술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회적 목표 실현을 위해 제품 혹은 서비스를 설계한다. 따라서 적정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과 영역을 개척하는 특성이 있다(송위진 외, 2009). 이는 사회적 기업이 기존의 운영 방식이나 비용구조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존속적 혁신(sustaining innovation)을 추구하는 것과 상반된다.

<표 5> 사회혁신 요소에 따른 소셜벤처의 특징

필수 요소	소셜벤처의 특징	선행연구
사회성 (Socialization)	전략적 사회니치 추구	Ieromonachou et al.(2004), Kess(2007), Frickel et al.(2010), Hess(2015), 송위진 외(2009), 정서화(2017)
	상대적으로 적은 노동통합 정도	Davister et al.(2004), Battilana et al.(2015), 남미옥(2014), 장원봉(2008)
혁신성 (Innovation)	적정기술 기반의 파괴적 혁신 추구	Christensen & Ruggles(2006), Christensen et al.(2015)
	적정기술 기반의 지식집약적 서비스 추구	양창훈(2006), 송위진·장영배(2009), 이재화·김병근(2016)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소셜임팩트 투자 기반의 지속가능성 추구	강민정(2012), 주성수(2017)
	사회·기술 시스템으로의 전환 추구	Geels(2004a), Geels(2004b)

이때 주목할 만한 것은 소셜벤처가 보유한 적정기술이 최첨단의 기술이 아니라, 기존에 현존하는 기술을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표 3>의 소셜벤처 사례 중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인 AI, Big Data, Blockchain 등이 활용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기존의 기술을 사회적 가치와 결합하여 새로운 사회적 혁신을 수행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소셜벤처는 현존 기술을 새로운 사회적 니즈에 적용하여 지금까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넷째, 소셜벤처는 혁신성의 측면에서 지식집약적 서비스 모델을 가진다. 지식집약적 산업이란 다양한 분야의 지식 집약도가 높은 분야로, 연구 개발, 신기술 적용, 정보 처리 등이 이에 속한다(양창훈, 2006; 송위진·장영배, 2009; 이재화·김병근, 2016). 소셜벤처는 기술 지식을 사용하여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식집약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단, 이때의 과학기술은 단순한 기술혁신과는 다르다. 즉, 긍정적 사회변화를 위한 혁신활동을 가속하

기 위하여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다(정서화, 2017). 따라서 소셜벤처의 지식집약적 특성은 기술이 아니라 사회에 방점을 둔다.

이러한 소셜벤처의 지식집약적 성격은 사회가치를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가치집약적 성격의 사회적 기업과는 다르다.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에서 강조되는 것은 질병 예방을 위한 돌봄서비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소셜벤처는 관련 기술에 대한 지식에 기초하여 전염성 질병의 의료적 예방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섯째, 소셜벤처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소셜임팩트 투자가 필요하다. 소셜벤처는 제4섹터로써 제1섹터의 자금인 세금 혹은 제2섹터의 자발적 이윤, 제3섹터의 사회적 지원 등과는 다른 차원의 경제적 투자가 필요하다(강민정, 2012;

주성수, 2017; Fourth Sector Group 홈페이지). 소셜벤처에 투자를 진원해야 하는 이유는 그 특성이 벤처기업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창업 후 나타나는 죽음의 계곡(death's valley)를 넘어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성에 기반한 소셜임팩트 투자 제도가 필수적이다.

여섯째, 소셜벤처는 사회·기술 시스템의 전환을 최종적 목표로 삼는다. 사회·기술시스템론에 따르면 사회와 기술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통합적 시스템이다. 즉, 혁신체제에서 사회성 혹은 혁신성의 중요성은 인과관계 혹은 순위를 정할 수 없으며, 두 특성의 융합작용을 통해 사회혁신이 일어나는 것이다(Geels, 2004a; Geels, 2004b; 송위진, 2013).

<표 6> 연구 프로세스



지금까지 논의한 소셜벤처의 특성에 따르면 소셜벤처는 ‘적정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적 니즈를 충족시킴으로써 기존의 시장 구조를 파괴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조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에 기반하여 제4섹터로서의 소셜벤처와 제3섹터로서의 사회적 기업을 유형, 서비스 모델, 최종목표, 노동통합정도, 지원자 등에 따라 정리하면 <표 4>와 같이 구분된다. 또한 사회혁신의 필수요소에 따라 범주화하면 <표 5>와 같다.

#### IV. 연구설계

사회적 혁신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셜벤처의 기업 역량 제고를 위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소셜벤처가 제4섹터로서의 역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생태계적 연구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소셜벤처가 사회성과 혁신성을 토대로 사회혁신을 일으키고자 할 때 외부적 영향으로 좌초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강민정,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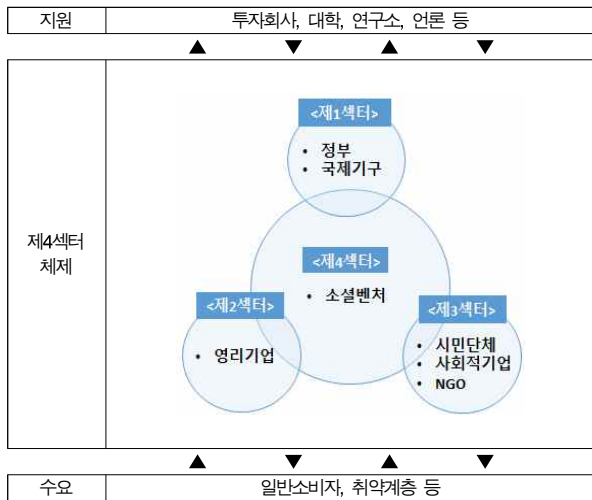
예를 들어 특정 기술이 개발되어도, 표준이나 안전기준, 보험제도,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인센티브 등의 제도적 기반이 부재하다면 서비스를 실현할 수 없다. 따라서 서비스 모델을 설계 및 운영하는 소셜벤처뿐만 아니라 그와 연계된 사회·기술시스템의 모든 혁신주체가 하나의 생태계 내에서 어떠한 역할과 전략을 가져야 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Geels, 2004a; Geels, 2004b).

이를 위해 소셜벤처와 영향을 주고받는 금융시스템, 소셜벤처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 시스템, 소셜벤처의 서비스를 판매하는 수요촉진 시스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소셜벤처의 생태계가 효과적으로 구축되었을 때, 사회혁신이 활성화되어 서비스가 고도화될 수 있다(윤지훈, 2017; 윤지훈 외, 2017). 따라서 소셜벤처 개별의 미시적 접근뿐만 아니라, 생태계 내 이해관계자와의 결합을 연구하는 거시적 수준의 생태계 연구가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 7>와 같이 소셜벤처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focused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여 소셜벤처 생태계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를 도출하고, 각 개체의 역할과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원활한 인터뷰를 위하여 문헌연구를 토대로 Jonathan Crinion(2009)의 제4섹터 개념도와 TEPSIE(2014)의 사회혁신 생태계 개념도를 융합하여 <표 7>과 같이 이해관계자맵을 도식화하고자 한다.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수행함으로써 제4섹터로서의 소셜벤처 사회혁신 생태계가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며, 각 참여 주체가 소셜벤처 생태계를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7> 제4섹터로서의 소셜벤처 생태계 (안)



참고문헌

강민정(2017). 사회혁신 생태계의 현황과 발전 방안. *Working Paper*, 1-31.

경기연구원(2018). *사회혁신의 새로운 기반 제4섹터*.

김은영(2011). 한국 제조업의 기술혁신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기술체제를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24(3), 1451-1478.

김태근(2013). 사회적기업의 이론적 실천적 다양성 연구: 유럽에서의 사회적 경제와 제 3 섹터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과 정책연구*, 2(2), 23-49.

남미옥(2014). 노동 통합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사회적기업과 정책연구*, 3(2), 71-102.

노대명(2007). 특집 논문: 사회적 경제와 한국시민사회의 과제; 한국 사회적경제 (Social Economy) 의 현황과 과제-사회적경제의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5(2), 35-73.

박민진·김태영(2018). 소셜벤처의 사회혁신 역할 분석. *사회적기업연구*, 11(3), 3-30.

성지미·황준옥·안주엽(2014). *소셜벤처 지원을 통한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 고용노동부

송위진·장영배(2009). 사회적 혁신과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기술혁신연구*, 17, 191-215.

송위진(2013). 사회·기술시스템론과 과학기술혁신정책. *기술혁신학회지*, 16(1), 156-175.

송위진(2016). 혁신연구와 ‘사회혁신론’. *동향과 이슈*, (27), 1-29.

양창훈(2006). 지식집약적 조직의 혁신수용에 대한 이론적 논의: 산업혁신체제론 (Sectoral Innovation System) 의 기술융합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조직학회지*, 3(2), 103-122.

윤지훈·박지훈·배종태(2017). 창업생태계가 소셜 벤처의 기업가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수동 소셜밸리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연구*, 10(1), 91-134.

윤지훈(2017). *소셜벤처의 기업가적 생태계 초기 형성 및 기업가적 행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사례 연구*.

이재화·김병근(2016). 한국 지식집약서비스업의 기술혁신성과 영향요인분석. *서비스경영학회지*, 17(3), 267-290.

장원봉(2008). 새로운 고용전략으로서 사회적 경제. *보건복지포럼*, 2008(10), 55-63.

정서화(2017). 사회혁신의 이론적 고찰: 개념의 유형화와 함의. *기술혁신학회지*, 20(4), 888-914.

주성수(2017).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임팩트* 한양대학교 출판부.

중소기업연구원(2018).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셜벤처 육성방안 연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16). *인증 사회적 기업 현황 자료*

Battilana, J., Sengul, M., Pache, A. C., & Model, J. (2015). Harnessing productive tensions in hybrid organizations: The case of 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8(6), 1658-1685.

Christensen, C. M., Baumann, H., Ruggles, R., & Sadtler, T. M.(2006). Disruptive innovation for social change. *Harvard business review*, 84(12), 94.

Christensen, C. M., Raynor, M. E., & McDonald, R. (2015). What is disruptive innovation. *Harvard Business Review*, 93(12), 44-53.

Davister, C., Defourny, J., & Grégoire, O.(2004). 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s in the European Union: an overview of existing models. *Revue Internationale de l'Économie Sociale: Recma*, 293, 24-50.

Defourny, C.(2000).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of deicing salts. In *8th World Salt Symposium*, The Hague, Netherlands (Vol. 2, pp. 767-770).

Defourny, J. & Nyssens, M.(2013), Social Innovation, Social Economy and Social Enterprise: What Can the European Debate Tell Us, In Moulart, F., MacCallum, D., Mehmood, A. and Hamdouch, A. (Eds.), *The International Handbook on Social Innovation: Collective Action. Social Learning and Transdisciplinary Research*, Cheltenham: Edward Elgar, pp. 40-52.

Edwards-Schachter, M. E., Matti, C., & Alcántara, E.(2012), Fostering quality of life through social innovation: A living lab methodology study case. *Review of policy research*, 29(6), 672-692.

Elzen, B., Geels, F. W., & Green, K. (Eds.)(2004). *System innovation and the transition to sustainability: theory, evidence and policy*. Edward Elgar Publishing.

Escobar, J. J., & Gutiérrez, A. C. M.(2011). Social economy and the fourth sector, base and protagonist of social innovation. *CIRIEC-España, Revista de economía pública, social y cooperativa*, (73), 33-60.

European Union·The Young Foundation(2010), *Study on Social Innovation*.

Freeman, C.(1994). The economics of technical change.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18(5), 463-514.

Freeman, C.(1995). *Innovation and growth*. Chapters.

Freeman, C.(1996). The greening of technology and models



- of innovation.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53(1), 27-39.
- Freeman, C.(2013). *Economics of industrial innovation*. Routledge.
- Freeman, C.(2013). *Economics of industrial innovation*. Routledge.
- Frickel, S., Gibbon, S., Howard, J., Kempner, J., Ottinger, G., & Hess, D. J.(2010). Undone science: charting social movement and civil society challenges to research agenda setting. *Science, Technology, & Human Values*, 35(4), 444-473.
- Geels, F. W.(2004). From sectoral systems of innovation to socio-technical systems: Insights about dynamics and change from sociology and institutional theory. *Research policy*, 33(6-7), 897-920.
- Haxeltine A., J rgensen, M. S., Pel, B., Dumitru, A., Avelino, F., Bauler, T., Lema Blanco, I., Chilvers, J., Cipolla, C., Dorland, J., Elle, M., Garido, S., Kemp, R., Kunze, I., Longhurst, N., Pataki, G., Rach, S., Renema, J., Ruijsink, S., Strasser, T., Tawakol, D., Weaver, P., & Wittmayer J. M.(2016b), On the agency and dynamics of transformative social innovation. *TRANSIT working paper #7*, TRANSIT: EU SSH.2013.3.2-1 Grant agreement no: 613169.
- Hess, D. J.(2015). Undone science and social movements. *Routledge international handbook of ignorance studies*. 141-154.
- Howaldt J, Kaletka C. & Schröder A.(2016), *Mapping the World of Social Innovation: A Global Comparative Analysis across Sectors and World Regions (July 2016)*. SI drive.
- Howaldt, J. & Schwarz, M.(2010), *Social Innovation: Concepts, Research Fields and International Trends*. Sozialforschungsstelle Dortmund.
- Ieromonachou, P., Potter, S., & Enoch, M.(2004). Adapting Strategic Niche Management for evaluating radical transport policies-the case of the Durham Road Access Charging Scheme.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port Management*, 2(2), 75-87.
- Innobasque(2013), *A regional index to measure social innovation*.
- Kachlami, H.(2016). Social venture creation and the influence of commercial ventures. *Social Enterprise Journal*, 12(3), 347-367.
- Lipietz, A.(2001). *Pour le tiers secteur*. L'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 pourquoi et comment.
- Lisetchia M., & Brancu L.(2014). The entrepreneurship concept as a subject of social innovation.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24, 87-92.
- Lurtz K., Müller S., & Rüede D.(2013). *Social Innovations: Expert Opinions on the Status Quo and Future Directions*, World Vision Center for Social Innovation.
- Meadows, Dennis(1972): *Die Grenzen des Wachstums*. Bericht des Club of Rome zur Lage der Menschheit, Stuttgart: Deutsche Verlagsanstalt.
- Mulgan, G.(2007). *Ready or not?: taking innovation in the public sector seriously*. Nesta.
- OECD(2010). *Social Entrepreneurship and Social Innovation(from SMEs,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 Shanmugalingam C., Graham J., Tucker S. & Mulgan G.(2010), *Growing Social Ventures, The Young Foundation-Nesta*.
- Siebold, N., Günzel-Jensen, F., & Müller, S.(2018). Balancing dual missions for social venture growth: a comparative case study.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1-25.
- Stoner James A. F., & Wankel C.(2007). Innovative approach to reducing global poverty, Information Age Publishing(from L.Easterly and P. Miesing, 2007. *Social Venture Business Strategies for Reducing Poverty*, 3-26.
- Westley, F. & Antadze, N.(2010). Making a difference: Strategies for scaling social innovation for greater impact. *Innovation Journal*, 15(2), 1-19.